

답사 및 일본의 조합사업에 대해서

구메 마사키(久米 政樹)



나는 지금 소개해주신 일본에서 온 구메 마사키라고 합니다.
나는 1971년 이래 오랫동안, 귀국의 포장 업계와 관계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미력이나마 귀국의 포장 업계에 공헌한 것을 과대하게 평가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환영회를 성대하게 개최해 주시니 대단히 황송하고, 감격함과 동시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나는 1971년에 처음으로 귀국에 왔고, 당시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의 요청으로 수출 포장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 후, 수강생 중 한 사람인 강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오셔서 내가 근무하고 있었던 신코곤포운수(주)를 방문하여, 포장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니 지원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사장과 협의하고, 예전의 속죄의 의미도 있어서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서울에 한국신광수출곤포(주)를 설립한 것이, 한국 최초의 포장 회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영업 개발을 시작으로 기술, 자금 지원을 계속하여 처음으로 중량물의 포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포장 업자가 탄생하고, 귀국의 수출 진흥과 국제물류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업계와 여러분의 왕성한 예지와 근면 및 창의력의 선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폐전 당시, 곤포업은 수출은 없고 국내 곤포만이 미미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 후,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일본에서 제조 가능한 범위의 군수물자의 발주가 있었고, 그것은 모두 미군의 곤포 사양서에 근거하여 곤포하지 않으면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는 곤포 업계에 들어왔고, 곤포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여 우선 이러한 영문 곤포사양서의 번역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에는 만족할만한 곤포 규격도 없는 시대였는데, 이러한 상세한 곤포 사양서에 놀랐으며 또한 일본과 미국의 격차가 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곤포 기술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기초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에도 각지에 곤포 업자가 난립하게 되었으므로,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업계끼리의 친목의 장의 필요성이 대두하여, 최초로 1971 년 관서지역에 기계류와 섬유제품을 곤포하는 업자들의 두 개의 조합이 생기고, 이어서 1972 년에는 관동지역에 동일본수출곤포공업조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조합이 모여서 전일본수출곤포공업조합연합회가 생겼습니다.

나는 동일본과 연합회의 이사로서 설립에 관여하였습니다. 연합회 사업으로서 우선 최초로, 공업기술원의 위탁에 의하여 나무상자 관련 J I S 규격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곤포 업계에는 이공계의 사람은 거의 없었으므로, 사명감도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에 대응한 셈입니다.

그리고, 틀상자를 밀폐와 개방형상자, 밀폐는 판재상자와 함께 합판상자로 규정하고, 구조역학적으로 다른 곳의 예가 없는 특수한 계산식을 도입하여, 설계의 합리화를 꾀하도록 했습니다.

이 J I S를 개정하는 기회에, 이것을 조합원에게 보급하기 위한 강습회를 동경과 코베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에 자격 사회에 대비하여 1975 년에 제 1 기 곤포관리사 인정 강좌를 개강하여, 각 기업의 중견 기술자로서 곤포관리사의 양성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강좌 내용은 나무상자 (보통나무상자, 요하부나무상자), 틀상자, 바깥틀상자, 요하반, 골판지상자, 완충포장, 방청, 방습, 방수포장, 고정기법, 원가계산, 수출포장 기법의 기본, 제도기법, 파렛트 등이었습니다만 외부의 선생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골판지상자, 완충포장 정도로 대학의 선생님도 강의를 받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각각 분담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실시하였지만, 그 후 격년으로 하여 작년 2003 년에 제 16 기가 되었고, 약 1000 명의 곤포관리사가 탄생하여, 일본 전국의 곤포 업체의 경영자 또는 간부로서 일본의 곤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2 년에 우연히 받아 들인 중국인 연수생도 수강시켰습니다.

그 때의 소박한 질문으로서 「일본은 자본주의의 경쟁 사회라고 듣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경쟁 상대의 회사 사람에게 곤포 이론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수주 업무가 주업무인 곤포업은 하주인 거래처에 매우 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하주도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품질의 향상과 생산의 합리화를 필사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지만, 최후로 남는 것이 「암흑대륙」이라고 일컬어졌던 물류의 합리화입니다.

그 때문에 하주도 운수 담당자를 신세대화 하고 공부를 시켜 합리화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 날, 전문업자인 곤포업계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는 이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곤포업계 전체가 곤포 지식을 몸에 익힌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강력한 입장에서 하주의 요망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포장 기술의 레벨업을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 16 기까지 강사로 활동해온 사람은 본인 한 사람이며, 이제 나이도 많고 후계자도 양성되었기 때문에 작년의 강습을 최후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상자 관련의 J I S도 제 4 차까지 개정이 진척되어 왔으며, 역학상으로 각종의 표는 SI 국제 단위계만으로 의하도록 개정되어 왔습니다.

많은 곤포관리사가 양성되어도,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현장의 작업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소관의 기능사 제도에 의한 국가시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작업원에게도 자격을 주어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부의 외곽 단체인 중앙능력개발협회에서 문제를 작성하여, 1981 년부터 「공업포장기능사」의 국가시험을 각도 도부현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중앙능력개발협회의 위원으로서 학과와 실기의 시험 문제 작성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곤포 작업 상의 분야마다의 필요한 상식 문제를 0×식으로 만들고, 실기는 1 급은 틀상자, 2 급은 보통나무상자를 수작업으로 만들고, 내장으로서 열봉합(heat seal)하여 지정한 치수의 자루를 만들어 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을 지정한 시간 내에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리허설을 해두지 않으면 마감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수험생이 있는 기업은 이런 리허설 시간을 주거나, 강사를 부르거나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석검정위원으로서 각지의 실기 시험에 입회하여 왔습니다. 학과와 실기에 합격하면, 1 급은 노동대신, 2 급은 각각 도, 도부현 지사에게서 합격증을 수여 받는 권위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명예 1 급 「공업포장기능사」의 합격증을 노동대신에게서 수여 받았습니

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 현장의 작업원도 필요한 지식과 실기 능력을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기업에 다수의 「공업포장기능사」의 자격자가 있어서, 기업마다 승급과 신분을 승격시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곤포관리사 유지 여러분이 곤포관리사 강습 및 「공업포장기능사」제도에 참여하여 이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나무상자, 틀상자의 설계와 원가 계산은 많은 지식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것들을 퍼스널 컴퓨터로 단시간에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1982 년경부터 나고야의 마루후쿠곤포의 후쿠타니 사장과 공동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조합원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없으면 일을 해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귀국에서는 1985 년 서울에서 발표회를 하였고, 그 후 김형빈선생의 노력으로 한글화가 진척되어, 1992 년에 서울과 창원에서, 후쿠타니 사장과 함께 소개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실시하여 보급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이지만, 강재를 이용한 Steel Box 에 의한 증량물 및 자동차의 KD포장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Steel Box 는 나무상자와 달리 상세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어느 전기 메이커의 요청으로, 증기 터빈의 날개가 부착된 로타리의 Steel Box 의 설계도를 퍼스널 컴퓨터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큰 것은 70ton 도 있고, 양 끝에 샤프트 만으로 받쳐야 하는 특수한 것으로써 확대 축소가 가능한 도면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출 포장용 목재의 해충 처리가 의무화 되고 있는 오늘 날, 이러한 Steel Box 도 장래의 방향으로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조합 사업으로서 지도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척시켜 왔지만, 이와 같은 업계의 사업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류사정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업계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진 레벨업이 필요하며, 한 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를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친목의 장으로서 동일본곤포조합의 경우, 지역이 나고야 동쪽의 넓은 범위이므로, 네 개의 지부로 분할하고, 각각 지부 활동으로서 친목의 장을 만들고, 강사를 초대하여 연구회, 견학회 또는 유지들의 골프 대항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본부에서는 곤포관리사 강좌에서 얻은 잉여금을 각 지부에 배분하고, 지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곤포조합 활동의 일단을 말하였지만, 이것이 귀국 포장 업계가 금후 사업을 진척하는데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으로 포장이란, 넓은 의미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포장과 수송을 목적으로 한 공업포장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공업포장을 일반적으로 「곤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대사전에 따르면 「곤포」란, 섬유 제품 등을 압축하고 대나무 또는 삼베로 싸고 줄 또는 스틸 밴드 등으로 조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점을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